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최근 탐구 경향: 2000년 이후 논문 분석

신현숙¹ · 성경미² · 정석희³ · 김대란⁴

¹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 동서간호학 연구소 조교수, ²아주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³서울여자간호대학 전임강사, ⁴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Trends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Nursing Science: Focused on Studies Submitted Since 2000

Shin, Hyunsook¹ · Sung, Kyung-Mi² · Jeong, Seok Hee³ · Kim, Dae-Ran⁴

¹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Seoul

²Part-time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won

³Full-time Instruct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⁴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nursing science submitted since 2000. **Method:** Three-hundred and five dissertations of six schools of nursing published from 2000 to 2006 in Korea were analyzed with the categories of philosophy, method, body of knowledge, research design, and nursing domain. **Result:** In philosophy, 82% of all dissertations were identified as scientific realism, 15% were relativism, and 3% were practicism. Two-hundred and fifty dissertations (82%) were divided into a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55 dissertations (18%) were qualitative methodology. Specifically, 45% were experimental, 23% methodological, 13% survey and 17% qualitative designed researches. Prescriptive knowledge was created in 47% of dissertations, explanatory knowledge in 29%, and descriptive knowledge in 24%. Over 50% of all research was studied with a community-based population. In the nursing domain, dissertations of the practice domain were highest (48.2%). **Conclusion:** Dissertations since 2000 were markedly differen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studies (1982-1999) in the increase of situation-related, prescriptive and community-based population studies. A picture of current nursing science identified in this study may provide a future guideline for the doctoral education for nursing.

Key words: Nursing philosophy, Methodology, Knowledge, Research subject, Domai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학문 전반의 탐구 경향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학제 간 협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학문 간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문 전반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학문을 다른 학문과 경계짓고 학문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만 하나의 학문이 개별 분과 학문으로 인정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학문만이 가지는 고유한 지식체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Barrett, 2002; Mitchell, 2003) 이견이 없는 듯하다. 간호학 분야에서도 그동안 인접한 다른 학문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지식체를 개발하고 축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개발된 지식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쟁과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탐구 방향과 탐구 영역을 모색해 오고 있다. 개별 분과학문의 지식체 개발 및 축적은 연구-이론-실무 영역의 지속적인 회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아가 학문의 영역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하

주요어 : 간호철학, 방법론, 지식체, 탐구대상, 탐구영역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Dae-Ran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94 Dongsan-dong, Jung-gu, Daegu 700-712, Korea
Tel: 82-53-250-7513 Fax: 82-53-252-6614 E-mail: drkim@kmu.ac.kr

투고일 : 2007년 10월 19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2일

는데, 선행연구 논문을 통해 그동안 축적되어온 탐구경향을 분석해 보는 일은 미래의 지식체 개발 방향을 조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간호학적 지식체란 간호의 독특한 현상에 관하여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독특한 철학적인 관점과 방법론적 과정이 반영되어 도출된 지식으로(Barrett, 2002), 이것이 분과 학문으로서의 간호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간호 분과 학문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Fawcett, 1999; Phillips, 1996). 따라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간호학적 지식체의 탐구 특성과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식론 및 존재론적 관점, 방법론, 그리고 간호학의 학문적 토대가 되는 이론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Kim, 1993). 이러한 관점에서 Kim (1993)이 제시한 ‘철학, 이론, 방법 간의 대안적 연계(alternative linkage among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cience)’의 분석 틀은 기존의 철학, 이론, 방법론 간 일관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적 관점(monistic stance)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간호 현장에서 상황에 적절한 다양하고도 대안적인 선택이 가능한 지식체가 개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im (1993)의 분석 틀을 이용하여 Lee와 Kim (2002)은 암환자의 피로에 관한 문헌 분석 연구를 통해 96개의 대안적 연계 중 5개의 대안을 보고하였고, Kim 등(2004)은 13가지의 비교적 다양한 탐구 경향을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박사학위 논문은 가장 논리적인 과정으로 철학, 간호이론, 간호 연구 간 상호관련성을 교육받은 후, 엄격한 철학적, 방법론적 숙고를 거쳐 탄생되는 간호학적 지식체의 정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간호 학문의 독특한 철학적 바탕이 되고 간호학적 지식개발의 출발점이 된다(DiBartolo, 1998). Spear (2007)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내에서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 207편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에 적용된 간호 이론, 탐구 영역, 연구 설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간호학적 지식체의 탐구 특성과 간호학 지식체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최초의 간호사 출신 박사를 시작으로 1982년에 첫 간호학 박사학위가 배출되었고, 2006년 8월 현재 전국에 총 14개 대학에서 간호학 박사 학위자가 배출되고 있다. 1973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한국에서 배출된 간호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은 총 932편으로 1973년부터 1989년까지가 69편, 1990년부터 1999년까지가 315편, 2000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총 548편으로, 21세기 들어 6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우리나라 전체 박사학위 논문의 반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박

사학위 논문의 양적 팽창에 수반되어 단일 분과 학문으로써의 최근의 탐구 경향은 어떠한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최근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Kim 등(2004)이 철학, 이론, 방법 등을 축으로 한 대안적 연계 틀을 분석 도구로 하여 1982년부터 2000년 초까지 발표된 국내 5개 대학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간호학 탐구 경향을 살펴본 논문의 후속 연구로,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의료사회 내부의 변화와 맞물려 21세기에 들어서 최근 6년 동안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이 이전의 탐구 경향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Kim (1993)의 대안적 연계 틀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간호학의 주요 탐구 대상과 탐구 영역에 대해서도 조사해 봄으로써 간호 분과학문의 특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2000년 이후 발표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철학적 오리엔테이션, 방법론, 지식체 간의 연계에 대해 일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그 외 간호학의 탐구 대상과 탐구 영역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최근 간호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학위논문의 탐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보고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탐구 경향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2000년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발표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548편 중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발표된 논문(Kim et al., 2004)에 포함되었던 5개 대학 외에 유사한 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1개 대학을 추가하여 총 6개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6개 대학의 선정 기

준은 2006년 8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6개의 학교로 정하였다. 이들 대학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6개 대학 중 4개의 대학은 서울특별시에, 두 개의 대학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과정 개설 연대는 1970년대에 개설한 곳이 2곳, 1980년대가 3곳, 1990년대가 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 교원의 수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21명의 범위에 있었으며, 이들 6개 대학의 평균 전임 교원 수는 14.8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논문 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논문의 탐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 논문(Kim et al., 2004)에서 분석한 2000년대 논문 21편을 본 연구 분석에 포함시켜 재분석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305편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수집은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대한간호협회 자료실에서 목록을 확인한 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해당대학도서관을 통해 논문을 확보하였다. 논문 분석은 분석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 분석과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자료 수집과 동시에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3.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Kim (1993)의 '간호과학에 있어서 철학, 이론, 방법 간의 대안적 연계'의 분석 틀을 기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 틀을 이용하여 암환자의 피로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Lee와 Kim (2002)의 연구에서 96개의 대안 중 단지 5가지만을 보고한 사실과 Kim 등(2004)이 일부 수정한 분석 틀에서 54개의 대안 중 12가지 연계를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 축을 일부 보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문의 철학적 오리엔테이션, 연구 방법, 결과적으로 도출된 지식체를 분석 틀에 포함시킨 것 이외에 간호학의 탐구 대상과 탐구 영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논문의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은 분과 학문의 탐구 대상, 주제, 영역과 그 방법론적 원리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간호과학에 영향을 주는 철학적 사조로 Silva와 Rothvart (1984)는 논리적 경험주의와 역사주의로 구분하였고, Allen, Benger와 Dieklmann (1986)은 경험적 분석주의와 하이데거학파의 현상학, 그리고 비판사회이론으로 분류하였으며, Kim (1993)은 과학적 실재주의와 과학적 상대주의로 구분하였다. 보다 근래에 들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사조의 영향으로 Ford-Gilboe, Campbell과 Berman (1995)은 후기 실증주의적 접근,

자연주의적 접근, 그리고 비판적 및 해방적 접근 등의 3가지 오리엔테이션으로 분류하였으며 Jacox, Suppe, Campbell과 Stachinko (1999)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였다. 즉, 실증적 및 경험적, 보편적 관점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역사적, 상대적 관점은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그 상황 속에 숨겨진 억압이나 모순을 밝혀 이를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요소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Kim 등(2004)은 Kim (1993)의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한 실재주의와 상대주의를 실재주의(realism), 상대주의(relativism), 실천주의(practicism)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실재주의란 현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지식을 도출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상대주의란 상황에 특수한 패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관점이며, 실천주의란 상황의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판과 참여, 해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오리엔테이션이다.

다음으로 방법론은 학문에서 묻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계획들의 개념적이고 논리적 기초에 대한 탐색의 측면을 말한다. Kim (1993)은 철학적 견해에 따라 1) 외부자적(etic) 견해와 내부자적(emic) 견해, 2)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3) 통제적(controlled) 관점과 자연주의적(naturalistic) 관점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외부자·내부자적 견해, 양적·질적 방법론의 2가지 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외부자적 견해에서의 질적 연구는 단 한편도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자적 견해에서의 양적 연구도 극히 제한된 논문에서만 나타나(Kim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연구 방법론을 분류하는 기준인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1가지 수준으로 분류하되, 양적 방법론의 연구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요인 분리, 요인 관련, 상황 관련, 상황 생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Kim (1993)의 대안적 연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론적 측면은 이론생성 수준과 지식체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론 생성 수준의 범주인 귀납적 및 연역적 수준은 방법론에서의 양적 방법론 및 질적 방법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 (1993)이 제안한 지식체 유형만을 포함시켜 기술적, 설명적, 처방적(규범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틀로 논문을 분석하였을 때 45가지의 대안적 연계가 도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탐구 영역은 간호학의 현상을 구성하는 경계 구조에 대한 것으로 Fawcett (1999)은 인간, 환경, 건강, 간호로, Kim (2000)은 대상자, 대상자-간호사, 실무, 환경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성이 낮으면서도 인문과학으로써의 간호학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 준다고 판단하여 Kim

(2000)의 분류를 근거로 한 4개의 탐구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탐구 대상은 논문에 나타난 대상 그대로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차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철학과 방법론, 지식체 유형의 틀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논문 중 5개 논문을 선정하여 4명의 연구자가 개별 분석한 후 분석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자 간 일치도는 80% 이상이었으며,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목록화하여 구체적인 분석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전체 논문을 4명의 연구자가 나누어서 분석하면서 분석 과정 중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서 합의점에 이르는 경우에 자료에 포함시켰다. 분석 틀을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는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 간호철학, 방법론, 지식체 유형 간의 연계

박사학위 논문을 실재주의, 상대주의, 실천주의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50편(82.0%)의 논문이

실재주의적 시각으로 작성되었고, 46편(15.1%)이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작성되고 9편(3.0%)의 논문이 실천주의적 시각을 보였다. 분석 대상 학교별로 살펴본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은 전체 학교의 연구 대상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실재주의적 관점을 나타내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에서의 연구 수준을 요인 분리, 요인 관련, 상황 관련, 상황 생성으로, 질적 방법론에서의 이해에 관한 연구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양적 방법론은 모두 250편(82%)이었으며, 이 중 요인 분리 수준의 논문이 21편(6.9%), 요인 관련 수준이 93편(30.5%), 상황 관련 수준의 연구가 132편(43.3%), 상황 생성 수준 연구가 4편(1.3%)이 있었다. 질적 연구방법론 및 기타의 연구는 총 55편(18.0%)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실험 연구가 136편(44.6%)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방법론적 연구 70편(23.0%), 질적 연구 53편(17.4%), 조사 연구 40편(13.1%), 개념 분석 연구가 3편(1.0%), 관찰 연구 2편(0.7%), 사례 연구가 1편(0.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연구 방법론을 분석한 결과 A 학교는 요인 관련 수준의 양적연구를 C학교는 상황 관련 수준의 연구 중심을 보이고, F학교의 경우는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 중심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지식체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142편(46.6%)이 처방적 지식을 산출하였고, 89편(29.2%)이 설명적 지식을, 마지막으로 74편(24.3%)이 기술적 지식의 결과를 보고하였다(Table 3). 논문

Table 1. Philosophical Orientation by School (N=305)

Philosophical orientation School	Realism n (%)	Relativism n (%)	Practicism n (%)	Total n (%)
A university	67 (84.8)	10 (12.6)	2 (1.3)	79 (100)
B	25 (75.8)	7 (21.2)	1 (3.0)	33 (100)
C	58 (100.0)	0	0	58 (100)
D	42 (80.8)	9 (8.7)	1 (1.9)	52 (100)
E	26 (59.1)	14 (31.8)	4 (9.1)	44 (100)
F	32 (82.0)	6 (15.4)	1 (2.6)	39 (100)
Total	250 (82.0)	46 (15.1)	9 (3.0)	305 (100)

Table 3. Knowledge Type by School (N=305)

Knowledge type School	Descriptive n (%)	Explanatory n (%)	Prescriptive n (%)	Total n (%)
A university	24 (30.4)	34 (43.0)	21 (25.6)	79 (100)
B	8 (24.2)	4 (12.1)	21 (63.6)	33 (100)
C	2 (3.4)	8 (13.8)	48 (82.8)	58 (100)
D	11 (21.2)	19 (36.5)	22 (42.3)	52 (100)
E	20 (45.5)	17 (38.6)	7 (15.9)	44 (100)
F	9 (23.1)	7 (17.9)	23 (59.0)	39 (100)
Total	74 (24.3)	89 (29.2)	142 (46.6)	305 (100)

Table 2. Methodology by School

(N=305)

Methodology School	Factor-isolating n (%)	Factor-relating n (%)	Situation-relating n (%)	Situation-producing n (%)	Understanding n (%)	Total n (%)
A university	12 (15.2)	37 (46.8)	17 (21.5)	0	13 (16.5)	79 (100)
B	1 (3.0)	4 (12.1)	19 (57.6)	2 (6.1)	7 (21.2)	33 (100)
C	2 (3.4)	8 (13.8)	48 (82.8)	0	0	58 (100)
D	2 (3.9)	19 (36.5)	19 (36.5)	2 (3.9)	10 (19.2)	52 (100)
E	2 (4.5)	18 (40.9)	6 (13.6)	0 (0.0)	18 (40.9)	44 (100)
F	2 (5.1)	7 (17.9)	23 (59.0)	0 (0.0)	7 (17.9)	39 (100)
Total	21 (6.9)	93 (30.5)	132 (43.3)	4 (0.0)	55 (1.3)	305 (100)

Table 4. Linkage of Philosophical Orientation, Knowledge Type, and Methodology

(N=305)

Methodology	Philosophy and knowledge type									Total n (%)
	Realism n (%)			Relativism n (%)			Practicism n (%)			
	Des	Exp	Pre	Des	Exp	Pre	Des	Exp	Pre	
Quan										
Factor-isolating	21 (6.9)									21 (6.9)
Factor-relating	1 (0.3)	88 (28.9)	4 (1.3)							93 (30.5)
Situation-relating			131 (43.0)						1 (0.3)	132 (43.3)
Situation-producing			4 (1.3)							4 (1.3)
Subtotal	22 (7.2)	88 (28.9)	139 (45.6)						1 (0.3)	250 (82.0)
Qual										
Understanding	1 (0.3)			45 (14.8)	1 (0.3)		6 (1.9)		2 (0.7)	55 (18.0)
Total	23 (7.5)	88 (28.9)	139 (45.6)	45 (14.8)	1 (0.3)		6 (1.9)		3 (1.0)	305 (100)

Quan=Quantitative; Qual=Qualitative; Des=Descriptive knowledge; Exp=Explanatory knowledge; Pre=Prescriptive knowledge.

Table 5. Research Subject

(N=305)

Subject	n (%)
Hospital	
Patient	71 (23.3)
Family	8 (2.6)
Medical staff	32 (10.5)
Community	
Individual	152 (49.8)
Family	14 (4.6)
Organization	6 (2.0)
System & policy	7 (2.3)
Cost	3 (1.0)
Others	12 (3.9)
Total	305 (100)

을 통해 생산된 지식체 유형은 학교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기술적 지식이 우세한 학교가 E학교이고, 설명적 지식이 우세한 학교는 A학교이고, 처방적 지식이 우세한 학교가 B학교와 C, D학교로 전체적으로 처방적 지식의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2000년 이후의 박사학위 논문을 철학적 오리엔테이션과 방법론, 지식 유형의 연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전체 가능한 연계가 45가지인데 이중 12가지의 연계가 나타났다(Table 4). 구체적으로는 실재주의-상황 관련-처방 지식의 연계가 131편(42.9%)으로 가장 우세한 연계였고, 실재주의-요인 관련-설명 지식이 88편(28.8%)으로 두 번째로 빈번한 연계였다. 다음으로는 상대주의-이해-기술 지식 45편(14.7%), 실재주의-요인 분리-기술 지식 21편(6.9%), 실천주의-이해-기술 지식 6편(2.0%), 실재주의-상황 생성-처방 지식과 실재주의-요인 관련-처방 지식 연계가 각각 4편(1.3%), 실천주의-이해-처방 지식 2편(0.6%), 실재주의-요인 관련-기술 지식 연계와 실재주의-이해-기술 지식, 상대주의-이해-설명 지식, 실천주의-상황 관련-처방 지식 연계가 각각 1편(0.3%)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Nursing Domain

(N=305)

Categories	n (%)
Client domain	84 (27.5)
Client-nurse domain	6 (2.0)
Practice domain	147 (48.2)
Environment domain	68 (22.3)
Total	305 (100)

2. 탐구 대상

2000년 이후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개인을 다룬 논문 편수(152편, 49.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병원에 있는 환자가 연구 대상자가 되었고, 병원의 의료진과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 병원 환자의 가족, 지역사회 조직체, 체제와 정책, 수가 등의 순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되었다(Table 5).

3.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은 실무 영역의 연구가 147편(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 영역이 84편(27.5%), 환경 영역이 68편(22.3%), 그리고 대상자-간호사 영역이 6편(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 연구에 있어서 실재주의적 접근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우세한 철학적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Kim et al., 2004)와 비교할 때 80년대에 86.4%가, 90년대에 76.3%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재주의의 간

호철학을 채택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 발표된 학위논문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여 82%에 해당하는 논문이 실재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전히 형식적인 논리와 객관적인 과학탐구 방법이 간호학적 지식체를 축적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1980년대부터 간호과학에 반영되기 시작한 상대주의 및 실천주의 패러다임은 1980년대에 발표된 학위논문의 13.6%에서, 1990년대 들어서 23.6%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18.1%로 약간 둔화된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로는 최근 들어 근거중심 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문 간호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일부 학교에서 실험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객관적인 측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철학적 오리엔테이션 전반을 살펴볼 때, 적절하고 명확한 철학적 패러다임을 결정하여 선택하는 것은 엄격하게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Appleton & King, 2002; Weaker & Olson, 2006) 여전히 다수의 논문에서 연구자의 철학적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패러다임은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료화시켜주고 철학적 가정과 이에 따른 방법론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므로(Weaker & Olson, 2006) 간호연구에서 패러다임을 명료화시켜나가는 것은 간호학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Colorado Nursing Think Tank, 2001). 따라서 분과 학문 지식체 생성의 근간이 되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철학적 인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이 방법론과 결과물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숙고가 필요하다.

연구 방법론에서는 양적 방법론에서 상황 관련 수준의 연구가 전체의 43.3%, 요인 관련 수준이 30.5%, 요인 분리 수준이 6.9%, 상황 생성 수준 연구가 1.3%를 차지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론 및 기타의 연구는 전체의 18.0%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1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를 분석한 Chang (2005)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했던 연구가 요인 분리 연구였고, 다음으로 요인 관계 및 상황 생성 연구였으며, 가장 빈도수가 적었던 연구가 상황 관련 연구로 보고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로 Chang (2005)의 연구에서는 요인 분리 연구에 질적 연구가 포함되었고, 상황 관련 연구에 모형 구축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이 상황 생성 연구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가 따로 분리되어 분석되었고,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상황 관련 연구로 분류되었으며 상황 생성 연구는 처방을 명확히 제시하고 반복이 가능한 연구만을 엄격하게 분류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연구 방법론이나 이론의 수준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특정연구가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박사학위 논문은 간호지식체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까지 간호학 논문에서 도출된 간호 지식체를 세 가지 지식유형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Kim et al., 2004)와 비교하였을 때 시기별로 독특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년대에는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이 처음 발표되기 시작한 때로 이때 생성된 지식체는 현상을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술적 지식의 논문이 40.9%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현상을 관련 요인들과 연결하고 설명 짓는 설명적 지식이 53.1%에 이르러 과반수 이상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2000년 이후의 학위논문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 전체 분석 논문 중 절반에 가까운 46.6%의 논문들이 처방적 지식체로 분류되었다. 처방적 지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실무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Donaldson & Crowley, 1978) 인간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Kim, 1993) 지식으로, 21세기에 들어 처방적 지식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최근 들어 전문 간호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간호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실천적 특성이 논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처방적 접근이 간호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식 개발 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Pesut & Sawatzky, 2006)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연구에서 처방적 지식의 양적 팽창이 간호 지식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방적 지식체로 제시된 학위논문의 상당수가 다양한 영역의 중재방법들을 간호 대상자에게 적용한 유사 실험연구 등을 통해서 도출된 것들로 그 중에서 상당수가 보완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으로 일컬어지는 중재방법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간호 처방에 대해 명백한 기준이나 정의가 아직 없어서 간호 처방의 수용범위에 대한 간호사회 내부의 적극적인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완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 등에 대해 Shin (1999)은 한국적 간호중재방법으로써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의 반복 연구나 임상 적용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실용 가능한 처방적 지식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과정을 따르고 결과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과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철학, 방법론, 이론(지식체 유형)의 각 범주에 대한 탐구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세 범주 간 연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도출 가능한 대안적 연계 45가지 중 12가지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일원론적 시각에서는 철학, 방법론, 지식체

간의 연결이 단순하고 도출될 수 있는 연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Kim (1993)은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한 대안적 연계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다원주의적 특성은 간호실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간호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안적, 선택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이론을 확장하고 새로운 간호지식체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잠재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000년 이후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타난 12가지의 철학, 방법론, 지식체의 연계는 이전에 지속적으로 탐구되었던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Kim (2000)이 간호학은 인간현상을 이해하는 인문과학임과 동시에 인간현상을 변화시키는 실무과학으로서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 치거나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접근은 한계점을 가지므로 인간 실무 과학(human practice science)으로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원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인간실무과학을 탐구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과학적 다원주의는 다양한 철학적,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인간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탐구된 지식을 간호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지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 대상 학교는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한지 15년 이상 경과하고 매년 다수의 학위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6개 대학으로 이들 학교 간 연구경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성이 파악되었다. 각 대학별로 21세기 들어 보고한 논문들은 서술적 지식체가 가장 우세한 곳, 설명적 지식체가 주류를 이루는 곳, 처방적 지식체를 주로 산출하는 곳 등 학교에 따라 도출하는 지식체 분포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방법론에서도 학교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학풍(academia)은 지식의 문화적 축적과 발전, 세대 간 전이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간호학의 학풍이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한국 간호학 내에 각기 다른 학파 형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박사학위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철학적 관점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특히 학위 논문을 쓰는 연구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관점과 방법론적 적합성 등을 논문에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도교수의 연구 전문성이 학생의 연구 목표와 맞다면 기존의 지식이 더욱 발전되고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학교별로 고유한 학풍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도출되는 지식은 기존의 축적되어온 지식

에 새롭게 제기되는 지식이 맞물려 간호 학문이 인간 실무과학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연구 대상을 보면 전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간호 연구의 대상이었다면 21세기의 간호 연구의 특성은 지역사회 인구(community based population)가 간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Kim 등(2004)의 선행 연구에서 80년대와 90년대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주된 대상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방문하고 있는 환자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기반의 개인에 대한 간호 연구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간호 연구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점차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간호의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간호의 연구 대상과 함께 간호학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간호 영역(nursing domain)을 Kim (2000)의 분류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실무 영역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 대상자 영역, 환경 영역, 그리고 대상자-간호사 영역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hang (2005)이 최근 1년간 대한간호학회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했던 연구가 실무 영역이었고 그 다음이 대상자 영역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Han, Kim, Kim과 Kim (2002)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00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연구를 대상으로 간호 영역을 분류했던 선행 연구에서는 63.9%의 연구가 대상자 영역의 연구였고, 34%는 실무 영역의 연구였으며, 1%가 환경 영역, 그리고 0.9%의 연구만이 대상자-간호사 영역의 연구로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1세기에 들어 간호지식체 유형 역시 처방적 지식이 크게 증가한 사실과 더불어 실무 영역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Kim (2000)의 4가지 간호 영역의 분류는 각 영역끼리 상호배타적이지 않아 한 가지 영역으로만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네 가지 중 어느 영역으로도 분류하기 힘든 논문도 있는 등 Kim의 분류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간호과학의 경향을 파악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간호 영역을 숙고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네 가지 영역 중, 대상자-간호사 영역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Kim (2000)은 실무 행동 과학으로 간호학 영역에서 현재 가장 부족하며 향후 간호 학문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 대상자-간호사 영역의 연구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 연구자들이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간호학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을 주요어로 하는 대상자-간호사 간 연구가 적극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연구 방법의 탐색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학위논문의 탐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이후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경향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0년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중 6개 대학 305편으로 철학적 오리엔테이션, 방법론, 지식체, 탐구 대상,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개인을 다룬 논문이 전체의 49.8%로 가장 많았다. 분석 대상 논문의 82.0%가 실재주의적 시각으로 작성되었고, 15.1%가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3.0%의 논문이 실천주의적 시각으로 작성되었다. 방법론에서는 양적 방법론에서 상황 관련 수준의 연구가 전체의 43.3%, 요인 관련 수준이 30.5%, 요인 분리 수준이 6.9%, 요인 생성 수준 연구가 1.3%를 차지하였다. 질적 연구방법론 및 기타의 연구는 전체의 18.0%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실험 연구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방법론적 연구, 질적 연구, 조사 연구, 개념분석 연구, 관찰연구, 사례 연구 순으로 보고되었다. 지식체 유형은 전체의 46.6%가 처방적 지식체, 29.2%가 설명적 지식체, 24.3%가 기술적 지식체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000년 이후의 박사학위 논문을 철학적 오리엔테이션과 방법론, 지식체 유형의 연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전체 가능한 연계가 45가지인데 이중 12가지의 연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실재주의-상황관련-처방지식의 연계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논문을 통해 생산되는 방법론과 지식체 유형은 학교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였다. 탐구 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개인을 다룬 논문이 152편(49.8%)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 영역은 실무 영역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147편, 48.2%), 대상자 영역, 환경 영역, 그리고 대상자-간호사 영역의 연구 순이었다.

본 연구는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간호

연구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새로운 간호현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용하며 또한 동료평가를 받는 학술지의 논문들과는 달리 연구주체의 독창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간호 연구 전반을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향후 다양한 학술지를 포함한 간호 연구 전반에 걸친 탐구경향을 파악하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Allen, D., Benner, P., & Diekelmann, N. L. (1986). Three paradigms for nursing research: Methodological implications. In P. L. Chinn (Ed.),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pp. 23-38). Rockville, MD: Aspen.
- Appleton, J. V., & King, L. (2002). Journeying from the philosophical contemplation of constructivism to the methodological pragmatics of health service research. *J Adv Nurs*, 40, 641-648.
- Barrett, E. M. (2002). What is nursing science? *Nurs Sci Q*, 15 (1), 51-60.
- Chang, S. O. (2005). Analysis on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ume 33, Number 6-number 34, number 5) based on nursing knowledge classifications. *J Korean Acad Nurs*, 35, 206-212.
- Colorado Nursing Think Tank (2001). JAN forum: saving the discipline-top 10 unfinished issues to inform the nursing debate in the new millennium. *J Adv Nurs*, 35, 138.
- DiBartolo, M. C. (1998). Philosophy of science in doctoral nursing education revisited. *J Prof Nurs*, 14, 350-360.
- Donaldson, S. K., & Crowley, D. M. (1978). The discipline of nursing. *Nurs Outlook*, 26, 113-120.
- Fawcett, J. (1999). The state of nursing science: hallmarks of the 20th and 21st centuries. *Nurs Sci Q*, 12, 311-315.
- Ford-Gilboe, M., Campbell, J., & Bermann, H. (1995). Stories and numbers: co-existence without compromise. *ANS*, 18(1), 14-26.
- Han, K. J., Kim, H. A., Kim, S. Y., & Kim, J. S. (2002). An analysis of the concepts in child health nursing studies in Korea (1): from 1990 to 2000. *Korean J Child Health Nurs*, 8, 449-457.
- Jacox, A., Suppe, F., Campbell, J., & Stashinko, E. (1999). Diversity in philosophical approaches. In A.S. Hinshaw, S.L. Feetham, & J.L.F. Shavert (Eds.), *Handbook of clinical nursing research* (pp. 3-17). CA: Sage publications.
- Kim, E. S., Kim, G. S., Kim, D. R., Kim, E. J., Sung, K. M., Shin, H. K., et al. (2004). Trends of nursing science inquiry in doctoral dissertations. *J Korean Acad Nurs*, 34, 315-323.
- Kim, H. S. (1993). Identifying alternative linkages among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cience. *J Adv Nurs*, 18, 793-800.
- Kim, H. S. (2000).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Lee, Y. J., & Kim, D. S. (2002). An analytical review on fatigue of cancer patients. *J Korean Acad Nurs*, 32, 897-905.
- Mitchell, G. J. (2003). Abstractions and particulars: learning theory for practice. *Nurs Sci Q*, 16, 310-314.
- Pesut, B., & Sawatzky, R. (2006). To describe or prescribe: assumptions underlying a prescriptive nursing process approach to spiritual care. *Nurs Inq*, 13, 127-134.
- Phillips, J. R. (1996). What constitutes nursing science? *Nurs Sci Q*, 9(2), 48-49.
- Shin, K. R. (1999). The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alternative. *J Korean Acad Nurs*, 29, 1403-1428.
- Silva, M. C., & Rothbart, D. (1984). An analysis of changing trends in philosophies of science on nursing theory development and testing. *ANS*, 6(2), 1-13.
- Spear, H. J. (2007). Nursing theory and knowledge development: a descriptive review of doctoral dissertations, 2000-2004. *ANS*, 30(1), E1-E14.
- Weaver, K., & Olson, J. K. (2006). Understanding paradigms used for nursing research. *J Adv Nurs*, 53, 459-469.